

김남훈

변호사

민사법

중요쟁점정리

- 선택형 대비를 위하여 변시 기출 및 모의기출 지문의 완벽 정리
- 사례형 대비를 위하여 중요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체득하여 암기
- 기록형 대비를 위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요건사실론)에 대한 학습

일 정

[민법] 4. 27(월) ~ 5. 8(금), 총 11 회,

※ 5. 3(일) 수업 있음(시간동일)

[민사소송법] 5. 11(월) ~ 5. 20(수), 총 8 회

[상법] 5. 21(목) ~ 6. 1(월), 총 8 회

복습용 선택형 시험 오전 9시 ~ 오전 9시 15분 (2회차부터 매일)

강의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월~금 강의)

교 재

-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저자, 제2판)+추가내용은 추록제공
- FOUETTE 로스쿨 민사법 기출지문총정리(저자, 초판)+9회 기출은 추록제공

수 강 특 전

※ 1순환 3과목 실강 전체수강생 특전

I. 동영상 무료제공(교재 별도구매)

- Essential Series 핵심쟁점강의(오픈화망일부 ~ 2020년 7월 31일까지 제공)

○ 민법 : 변호사시험 민법 핵심쟁점 심화정리특강(2020년 4월 강의)

○ 민사소송법 :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핵심쟁점 심화정리 특강(2020년 4월 강의)

○ 상법 : 변호사시험 상법 단권화 집중정리(2019년 4월 강의)

II. 교재 무료제공(개강 후 제공)

○ Essential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제2판)

○ Practice 민사기록형 암기장(제4판)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중요쟁점정리**

Coaching & Mentoring

F A Q

Q1. 변호사시험에서 민사법의 출제경향은 어떠한가요?

A1.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은 매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변호사에게 필요한 실무적 쟁점 위주로 높은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짧은 시간에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정확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말 그대로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므로, 이러한 경향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민법과 민소법의 통합문제 뿐만이 아니라, 상법까지 연결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통합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전 영역에서 판례의 법리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알아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의 소,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가압류와 가처분 등과 같이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판례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판례가 없는 쟁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쟁점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잘 이해하여 판례가 아직 판시하지 않은 관련 쟁점에 대한 수험생의 풀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판례가 있는 사안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출제경향도 비중은 높지 않겠지만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i) 선택형에서는 ‘가능하다’를 ‘불가능하다’의 식으로 판결요지를 변형하여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묻는 형식은 줄어들고 있고, 설문이 긴 사례식 및 계산식 문제와 통합형 문제들 위주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심화된 지문과 판례를 응용한 지문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형에 출제된 판례가 사례형과 기록형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9회 시험에서는 민사집행법의 중요 쟁점이 선택형에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ii)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가 변형된 후에 당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 설문으로 주어지는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례형에서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 채권양도와 연결되어 출제되고 있고, 기록형에서는 ‘압류 경합의 경우에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명령은 유효’라는 쟁점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민사재판실무(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 포함)의 중요 쟁점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F A Q

Q2. 올해 강의 진행방향은 어떠한가요?

A2. 한편으로 끝내는 민사법(제2판)과, FOUETTE 로스쿨 민사법 기출지문총정리(초판)를 기본 교재로 하여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끝내는 민사법으로 강의를 먼저 진행한 후에(민법 7회, 민소법 5회, 상법 5회), FOUETTE 로스쿨 민사법 기출지문총정리로 강의(민법 4회, 민소법 3회, 상법 3회)할 것입니다. 2회독의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므로, 복습 위주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별도의 강의진도표는 없습니다). 2019년판 이후 추가할 내용은 추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i) 한편으로 끝내는 민사법(제2판)으로,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 쟁점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 쟁점 위주로, 정확하게 이해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중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고득점 합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ii) FOUETTE 로스쿨 민사법 기출지문총정리(초판)는 변호사시험 선택형에 출제된 모든 지문을 정리한 교재입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에 출제된 지문(판례)는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출제될 수 있고, 선택형에 다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 중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의할 것입니다.

(iii) 2일차부터 수업 시작 전인 오전 9시 ~ 9시 15분 정도까지 선택형 일일테스트(매일 10문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일일테스트 문제는 법전협 모의시험 선택형 문제 중에서 학습해야 하는 문제를 선별하여 출제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법전협 선택형 문제를 전부 풀 수는 없고, 풀 필요도 없습니다. 1순환에서 변시 기출문제와 김남훈 변호사가 엄선하여 제공하는 법전협 모의시험을 정리하고,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최신 판례 중심의 모의고사로 실전연습을 하면 선택형 대비로 충분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중요쟁점정리**

Coaching & Mentoring

F A Q

Q3. 기본서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데 수강할 수 있을까요?

A3. 기본서로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으로 끌어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제10회 시험이 8개월 정도 남아 있는 현재 시점에서, 두꺼운 기본서의 내용 위주로 학습하는 방법은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본서 읽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도 풀고, 최신 판례까지 정리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실전용 문제를 연습하면서 그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김남훈 변호사가 정리해 주는 교재와 수업 내용을 변시 전까지 철저하게 5회독을 하면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기본서에 대한 보충학습이 필요하면 김남훈 변호사의 Essential Series를 기본서로 삼아서 학습하 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1순환 3과목 실강 수강생에게는 위 교재들로 진행한 핵심쟁점 정리강의를 동영상으로 진도별 모의고사가 시작되는 8월 전까지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취약한 부분을 선별하여 교재와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질문하여 해결하면, 민사법의 고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중요쟁점정리**

Coaching & Mentoring

F A Q

Q4.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의 활용방법은 무엇인가요?

A4. 수험생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답안지에 적힌 내용뿐이므로, 학습한 지식을 정확하게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 답안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답안지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키워드를 암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는 ~~와 같은 방식으로 답안지에 서술해야 하니, ~~ 문구로 암기하라”는 식으로 강의할 것입니다. 복습 시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의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와 암기할 문장을 정리하는 용도로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암기는 1순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암기해야 합니다.

본 교재는 제가 수험생 시절부터 정리하여 공부하였던 자료를 기초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로 저 또한 고득점 합격을 하였습니다. 3년 전부터 변호사시험의 마무리 교재로 활용하였고, “답안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가 많았던 교재입니다. 믿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암기장에 수록된 판례문구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고득점 답안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Q5. 강의 내용의 변시에 대한 적응률은 어떠한가요?

A5. 제1회 시험부터 제9회 시험까지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쟁점은 모두 김남훈 변호사가 강의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김남훈 변호사는 2007년부터 민사재판실무를 강의하고 있고, 2015년 2학기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실무가 교수진의 자격으로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관련된 각종 비공개 세미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과 교재 및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출제한 예상문제가 변호사시험에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아래 제9회 변호사시험 적응사례 중 일부 참조,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에서 적응한 사례만 수록,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적응한 사례는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계획서 참조). 이러한 사실은 2021년 1월에 시행될 제10회 시험에서도 다시 증명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중요쟁점정리**

Coaching & Mentoring

F A Q

■ 제9회 변시 제1문의1 문제3번

매매 당시 乙은 甲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X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저당권자 C)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乙의 채권자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었다. 甲의 대금지급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C의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甲은 C에게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저당권을 말소시켰고,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X건물을 인도하였다. 이후 丙은 甲을 상대로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문제 〉

3. 甲은 위 소에서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 5,000만 원으로 乙의 매매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甲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는가? (25점)

□ 적중사례

☞ 민법 제498조에 대한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이 출제되었다. 본 판례와 관련해서는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225면~228면 참조)”에 대한 강의에서, 민법 제498조와 민법 제451조에 대한 판례쟁점을 구분하여 강조하였다.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 225면, 민법 핵심암기장 299면]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일인 2013. 3. 1.에, 중도금 4천만 원은 2013. 5. 1.에, 잔금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과 동시에 2013. 7. 1.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甲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乙에게 지급하였다. X토지에는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2. 24. 피담보채권액이 5천만 원인 A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乙에 대한 채권자인 丙이 2013. 6. 1.에 자신의 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甲에 대한 매매잔대금지급청구권인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압류 하였다. 가압류 결정정본이 2013. 6. 5.에 乙과 甲에게 송달되었다. 丙이 가압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甲은 이중변제를 당하게 될 것이 염려되어서 잔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乙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고 甲에게 잔대금 5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저당권자 A는 X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甲은 2013. 7. 28. 乙을 대위하여 A의 채권액 5천만 원을 변제공탁을 하였고 이를 A가 수령하고 경매신청을 취하여 경매절차는 종료되었다. 丙이 2013. 8. 1. 乙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에 乙의 甲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전부명령이 甲과 乙에게 송달이 되어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丙은 2013. 9. 1. 甲을 상대로 전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자신이 변제공탁 한 5천만 원으로 전부금에 대하여 상계를 한다는 상계항변을 하였다. 甲의 상계항변이 적법한 것인가?

- 제49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사안(동시이행항변권)과, 반대해석에 의한 사안(제한설)을 구별하여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채권이 양도된 사안이 제4회 사례형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본 쟁점의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

민사법 중요쟁점정리

Coaching & Mentoring

F A Q

■ 제9회 변시 제1문의3 문제1번

〈 기초적 사실관계 〉

甲은 2008. 4.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9.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 아래 문제에서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 문제 〉

1. 乙은 2012. 4. 1.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소는 적법한가? (15점)

□ 적중사례

채무부존재확인인 소의 확인의 이익과 관련한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판결이 출제되었다. 본 쟁점에 대해서는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421면 참조)”에 대한 강의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인 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와 나중에 제기된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진도별 모의고사 민사소송법 사례형 5회차 문제로 출제하였다.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 421면,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204면]

피고 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 甲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원고 甲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가 부존재 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계속 중 피고 乙은 원고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반소가 적법한지와, 본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논하라.

- 반소의 적법요건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인 본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그 후 채무이행의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의 소의 이익의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진도별 모의고사 민사소송법 사례형 5회차]

甲과 乙은 동업을 하기로 조합계약을 맺은 후, 동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丙에게 “동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서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丙이 甲에게 위 차용금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자, 甲은 丙을 상대로 차용금반환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에서 丙이 甲, 乙을 공동반소피고로 하여 위 1억 원의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행청구의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원고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丙과 乙의 위 각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20점)

[문제의 해결] 채무부존재확인인 소와 제3자 반소

채무부존재확인인 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반소의 피고는 본소의 원고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제3자 반소와 관련된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 판결의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

민사법 중요쟁점정리

Coaching & Mentoring

F A Q

■ 제9회 변시 제1문의3 문제2번

2. 甲은 2012. 4. 1.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乙에게는 甲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었고,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위 두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乙도 위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甲이 위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乙은 비로소 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상계 주장은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에 해당하는가? (15점)

□ 적중사례

☞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된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이 출제되었다. 본 판결에 대해서는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393면 참조)”에 대한 강의에서,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련하여 실권되지 않는 항변권은 청구이의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쟁점이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 393면, 민사소송법 핵심 암기장 167면]

甲은 乙이 시공한 건물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甲은 乙에게 건축자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乙은 甲이 불량자재를 공급하여 재시공을 하느라 2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2억 원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甲은 乙을 상대로 3억 원의 건축자재대금이 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甲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이 승소판결을 근거로 乙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 乙은 확정된 甲의 3억 원의 자재대금채권 중 2억 원을 자재의 하자로 인한 자신의 甲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상계권의 행사가 적법한 청구이의의 소가 되는가?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것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는 사유는 주장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 외의 새로운 사유만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즉 청구이의의 소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중요쟁점정리**

Coaching & Mentoring

F A Q

Q6. 수강생에게 당부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6. 근대철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데카르트’는 1637년 ‘방법서설’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옳은 길로만 간다면, 너무 서두르다가 길을 잃는 사람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메리츠 자산운용 최고경영자인 John Lee 대표이사는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일을 이미 이룬 사람을 찾아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합격을 원하신다면 김남훈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직접·간접으로 체득한 합격을 위한 옳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남훈 변호사에 대한 믿음과 합격에 대한 열망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남훈 변호사가 제시하는 옳은 길만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위해 필요한 나머지는 김남훈 변호사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합격을 위하여 필요한 민사법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제10회 시험에서도 민사법 전 과목과 전 영역에서 최고의 적중률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단순한 “Teaching의 과정”이 아니라 “Coaching & Mentoring의 과정”을 통하여, 김남훈 변호사와 함께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 중의 하나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 4. 27. 오전 9시 30분 !!!

내 인생에 몰아친 파도가 나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삶의 무대에서 몰아치는 파도와 만나면

누구나 주저앉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파도가 나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

두 손에 꼭 쥔 열정을 놓치지 않는다면

열정으로 벅찬 가슴을 믿는다면

그 무대는 온전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 국립발레단 단장 강수진, 한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